
김문수 후보 = 윤석열 내란 연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던 나경원 의원에 이어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도로 윤석열당, 내란의힘이 됐습니다.

계몽령을 두고 상당히 센스 있는 말이라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계승자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연장의 동의어인 김 후보로는 내란의 진실도, 김건희 여사 의혹도, 민생파탄의 책임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밝힐 수 없습니다.

최근 내란세력의 조직적 증거인멸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서울경찰청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기록을 삭제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내란 국무회의의 진실이 조작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진술이 실제 CCTV 화면과 상이한 상황입니다. 그간 입을 다물고 있던 군 수뇌부의 폭로도 나오고 있고, 문짜를 부쉬서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김 후보가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면 진실은 또다시 묻힐 것입니다. 김 후보 스스로가 내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는 국민 앞에 뒤흔든 사과도, 윤 전 대통령 탈당요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소불위 김건희 여사의 비리도 은폐될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통일교 고위간부는 건진법사를 통해 샤넬백 2개를 김 여사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 씨가 더 비싼 샤넬백으로 교환한 것 외에는 그 행방이 묘연합니다.

만약 정권이 연장된다면 샤넬백은 디올백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에 대해 작년 10월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고, 올해 4월에는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해병대 수사외압, 무속 의혹 등도 모두 수면 아래로 묻힐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은 오직, 민생에 무능하고 불통에 유능하며 친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권의 기조일 것입니다.

김 후보는 그 스스로가 윤석열 정권의 상징입니다. 극우 유튜버로 몰락했던 김

후보를 다시 세운 것이 윤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일조해 왔고,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거부하며 ‘꼳꼳 문수’가 되었습니다.

내란정권의 상징이 이제 정권의 연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의 나라는 윤석열의 나라가 연장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나라를 망칠 기회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정권교체뿐입니다.

2025년 5월 27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